

2023년 한가위 가정예배

사도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59장(통305)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 같이

보통으로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 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잇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 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 라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 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라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 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라

후렴

고마워 라 임마누엘 에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 루

기 도 가족대표

성경봉독 시편 128편 다 같이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설 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 말 은 이

찬 송 314장(통511)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 같이

보통으로

1. 내 구주 예수를 더기 욕사 랑도
2. 이 천세 때 날매 찬양 하 고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 하 고

엿지 숨 드림 질 러내 비 는 말 들으 소 서
숨 드림 질 러내 비 는 말 들으 소 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다 만 내 비 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욕사 랑 더 욕사 랑
더 욕사 랑 더 욕사 랑 아 멘

주기도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 씀 :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시편 128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3대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에서는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햄버거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는 정작 따로 있는데 바로 쉐크버거와 파이프가이즈, 그리고 인앤아웃이라는 브랜드가 그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아직까지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브랜드는 미서부의 대표 햄버거 브랜드인 인앤아웃입니다. 1948년에 해리 스나이더가 설립한 인앤아웃 버거는 신명기 28장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따라 가게 이름을 인앤아웃이라고 정했습니다. 또한 햄버거 포장지에 말씀을 적기도 하는 등 기독교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각자 열심히 삶을 살아가던 가족들이 한곳으로 모이면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정을 떠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열심을 다해 살다가 잠시 시선을 옮겨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어땠는지 또 그 복을 잘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정 안의 복과 가정 밖의 복을 모두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의 복과 가정 밖의 복 모두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향한 복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사실 범직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언제나 수고해야 소산을 얻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고한다고 하여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수고가 반드시 성과로 나오지 않았습니 다. 이 사실은 아담의 시대 이후에도 현재까지 유효하며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하고도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은 수고를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악한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가정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처럼 지금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랐고 우리의 가정이 그 소산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열심은 '헛된 수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완성시켜 그 열매를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가정이 진정으로 복된 가정이며 그 은혜가 언제나 함께할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소산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음을 기억하시며 온 가정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